‘자기를 바로 봅시다’ 성철스님 일대기 특별전 개막

총무원, 탄신 100주년 맞아 ‘종단의 큰스님’ 편 별도 편성 6월3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

통합종단 출범 50주년과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을 겸한 ‘성철스님 일대기 특별전’이 개막 3개월 동안 전시를 시작했다.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은 ‘탄신과 출가’ ‘수행과 결사’ ‘동구불출과 사자후’ ‘해인총림과 백일법문’ ‘종정과 한글법어’ ‘열반과 다비식’ 등 6편 이외, ‘종단의 큰스님과 성철스님’이 별도 편성돼 통합종단 출범 50년 동안 종단의 역대 큰스님들과의 교우를 중심으로 한국불교를 되돌아 볼 수 있게 구성됐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의 8일 개막행사에서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스님은 “10년 전 무렵 묘엄스님을 뵐 때 이런 특별전을 기획하게 됐다”며 “최근 3000배에 대한 평가가 신심증진에 국한되지 않고 큰스님께서 자신이 금권 권력 부정한 일들로부터의 접근을 물리치는 훌륭한 만리장성으로 쌓아, 큰스님이 혹독하게 상좌들과 측근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긍정평가되는 현실을 이번 특별전 준비에서 각별히 유념했다”고 말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스님은 인사말에서 “1979년부터 83년까지 해인사에서 방장이며 종정이신 스님의 대중법문을 들고 눈빛을 마주할 당시 수행자의 진면목을 점할 수 있었다”며 “올곧은 수행자의 삶과 기록을 전시할 기회를 맞아 기쁘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축사에서 “정신적 초석을 다지고 종단을 넘어 국가 대중들을 일깨우는 법문을 들려준 큰스님이었다”며 “자신의 본래면목을 바로보고 권고독보하는 길을 이번 특별전에서 찾게 된다”고 축하했다.

한편 원택스님은 다비식의 만장이 특별전에 출품된 것과 관련, “다비식 당시 비가 와서 젖어있던 만장들은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들이 수거하고 수리해서 문화유산으로 보관해 오던 것”이라며 참석자 중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 관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전시회는 6월 3일까지 계속된다.

김종찬 기자 kimjc00@ibulgyo.com

복지재단 후원 ‘감사’ 편지 동국대입학생 등록금 지원

총무원장 자승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복지재단 후원으로 올해 동국대 법학과에 입학한 김 모 양을 지난 8일 집무실로 초청해 격려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3년에 걸쳐 인연을 맺은 결연후원가정의 자녀가 올해 동국대 법학과에 당당히 합격, 최근 감사의 편지를 보내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해 의정부 광동고를 졸업하고 지난 2월 동국대에 입학한 김 모 양은 총무원장 자승스님 앞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 “어린 나이에 가난을 마주하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기도 했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방황하기도 했다”면서 “지금의 저로 성장하기까지 사람과 나눔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법학공부를 열심히 해서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양은 지난 2009년 복지재단이 진행한 실직가정을 위한 긴급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매달 1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일 김 양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무실로 초청해 격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공부해 뜻을 이뤄 대견스럽다”면서 “앞으로 들어갈 등록금도 적지 않은 만큼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한 한기 등록금을 책임지겠다”며 장학금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김 양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화답했다.

허정철 기자

〈편지전문〉

동국대 지성콘서트 강좌 청년고용센터 위탁 운영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명사 초청 강좌를 마련하고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재학생 교육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국대 교양교육원(원장 조상식)은 지난 14일 본관 중강당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6월13일까지 각계 명사를 초청한 가운데 ‘Pride DONGGUK 지성콘서트’ 교양강좌를 진행한다.

‘창조적 변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치 낯설게 읽기, 청춘 담론과 실천, 창조적 파괴, 경계 허물기 등 4개 영역으로 세분화한 이번 강좌는 대중문화평론가, 언론인, 인간문화재, NGO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이 강사로 초청돼 강연과 대담형태로 진행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국대는 지난 2월28일 본관에서 방정극 동국대 학술부총장,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청년고용센터’ 위탁 운영 체결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동국대 내에 대학청년고용센터가 설치돼 전문 컨설턴트 3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저학년 직업 진로지도,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의 취업 및 채용지원, 정부 청년고용사업 연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이종찬 한시산책

空手把鋤頭	공수파서두	빈손인데 호미 자루 잡았고
步行騎水牛	보행기수우	걸어가면서 무소를 탔다
人從橋上過	인종교상과	사람은 다리 위를 지나는데
橋流水不流	교류수불류	다리가 흐르지 물이 흐르지 않네.

진각(眞覺, 1178~1234) 국사가 제자의 수행과정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인용한 것을 소개하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회주니 익주니 하는 먼 공간을 동일 공간으로 압축하려니까 이해가 어려웠지만, 여기서는 강물과 교량이라는 동일 공간의 상하 수직이라는 가까운 거리이기에 큰 부담은 없다. 그러나 정지된 부동의 교량과 흐름의 동적 강물의 속성을 뒤집어 놓았으니, 일상적 상식으로는 접근이 쉽지 않다.

이 시의 어법은 첫 구부터 뒤틀리기 시작했지만, 결론은 ‘다리가 흐르지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데 있다. 물은 유동이요 교량은 부동이라는 고정관념을 잠시 접고, 시선을 강물에 고정시켜 물을 부동으로 보면 다리가 흐른다고 바로 느낄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달리는 차에서 졸다가 깨어나 창밖을 보면 주변의 물체가 뒤로 달리고 있다. 깜짝 놀라 차 안으로 시선이 모이면 다시 차가 가고 있는 것이다. 잠이라는 무의식이 주변 물체의 부동과 차의 유동을 정지시켰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현실로 환원되는 것이다. ‘꿈의 깨어남’과 ‘진리의 깨달음’이 동일 어원인 ‘깨닫다(覺)’임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국대 명예교수

圓 寂

曹溪宗 元老 古佛叢林 方丈 壽山堂 知宗大宗師 元老會議葬

大韓佛敎曹溪宗 元老 壽山堂 知宗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佛紀2556(2012)年 3月 7日(陰 2月 15日) 午前 8時 44分 靈光 母岳山 佛甲寺에서 法臘 73年, 歲壽 91歲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門徒代表 禪覺 合掌

■ 焚 香 所 : 長城 白羊寺
■ 永訣日時 : 佛紀2556(2012)年 3月 11日(陰 2月 19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 長城 白羊寺
■ 茶 毘 場 : 長城 白羊寺 蓮花臺
■ 問議 및 連絡處 : 長城 白羊寺 ☎ (061)392-7502

大韓佛敎曹溪宗 元老 古佛叢林 方丈 壽山堂 知宗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